

201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11월 20일 오후)

# 논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원학과 ( ) 수험번호 ( ) 성명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임.
-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작할 것.
-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5. 제목을 쓰지 말 것.
-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십시오.

### <제시문 A>

Chin Shih Huang,<sup>1</sup> who achieved the unification of China, was an ambitious and aggressive type of monarch. After having overthrown the Chou dynasty,<sup>2</sup> he named himself emperor and removed local authority from conquered stat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olding all power, people were forced to follow the philosophy of Chin Shih Huang. Confucianism<sup>3</sup> and other philosophies were ignored in favor of Legalism:<sup>4</sup> people were to follow the laws or be punished accordingly. In his effort to control the thoughts of the people of China, Chin Shih Huang burned many books and killed government critics. While the lack of free thought was a serious problem, strong government control led to a well-organized empire, uniformity of written characters, a common currency, and a shared system of weights and measures.

— Chen Chih-Ping & Chen Shih-Fu, *Chinese History* —

<sup>1</sup>秦의 시황제   <sup>2</sup>周나라   <sup>3</sup>유가사상   <sup>4</sup>법가사상

### <제시문 B>

One of the most astonishing features of the Roman Empire is the sheer diversity of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landscapes it controlled. It was a European empire in the sense that it controlled most of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present EU (European Union), but it pulled together diverse cultures in Asia (the Near East), Egypt and North Africa that have not been reunited since the spread of Islam. What we might look for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is some conscious encouragement of the diversity of the different societies that composed the empire. Usually, local customs, laws and even local governments were permitted to continue unmodified, for the Roman Empire considered tolerance of provincial customs politically practical.

— Andrew Wallace-Hadrill, “Roman Empire” —

### (자료 1)

대중매체의 발달로 문화가 점차 동질성을 띠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지역 특유의 문화를 활성화시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또 정체성이 뚜렷한 지역문화를 더 찾고 경험해보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제 개최, 주요 문화 유산의 보존, 토속 음식의 계승 및 발전 등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서도, 문화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

(자료 2)

21세기의 조직 간 동질화는 과거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말 시대를 풍미한 글로벌화의 이념과 IT 기반의 정보 통신의 발달은 지역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지구촌 사회라는 규범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의 유학 증가, 언론 미디어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념 선포로 인해 강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규제의 폭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산업 표준화라는 강압적 동형화 또한 강화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정부가 제안한 나노 기술의 청사진이 산업계에 미쳤던 동형화의 현상보다도 현재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환경 분야 청사진에 대한 기업들의 동형화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즉 21세기의 경영환경은 조직 간 동형화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빨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동형화를 유도해냄으로써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비교적 손쉽게 획득하고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LG경제연구원, 「동형화의 틀로 본 성공전략」 —

(자료 3)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읍은 국제 난장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장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장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읍의 난장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읍을 제외한 곳은 난장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공포·불공평·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를 무시했다. (중략)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장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장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읍의 난장이들은 자기들의 특수의료 문제, 사회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자료 4)

달러가 유일 기축통화가 된 것은 정치군사 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1위 경제강국이고 그들의 금융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경제는 유일 강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고,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이미 다극체제로 진입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지역 단위의 소맹주들이 속속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환율체제는 여전히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기축통화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지역맹주의 부상으로 통화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환율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글로벌 통화체제 역시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단위별 통화 통합, 통화 블록 간 국제협력체제 구축, 몇 개 국가의 통화가치변동률을 감안한 환율 결정 방식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별 통화스와프 체제를 구축하거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조직을 지역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역통화블록이 형성되면 통화블록 간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하여 글로벌 환율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프랑스 경제학자 도미니크 플리옹 (언론인터뷰) —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우리말로 서술하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논제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핵심적 차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경제학자의 제안을 (자료 3)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